

우라반다이의 여름

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우라반다이의 풍경은 푸르른 초록으로 변합니다. 하지만 기온이 비교적 낮아 수많은 호소 주변은 등산이나 나무그늘 산책에 적합한 지역입니다. 이 계절의 볼거리는 6월 말부터 7월 초에 선명한 노란색 꽃이 피는 큰원추리(애기원추리와 비슷한 꽃)와 6월 중순에 오구니누마 늪 주변의 습지에서 개화하는 로텐드론 물(일본 고유의 철쭉)입니다.

더운 시기에 특히 인기가 있는 하이킹 코스 중 하나는 오노가와 후도타키 폭포 산책로입니다.(편도 약 1km, 30분) 폭포 주변 일대는 그늘이 많고 기세 좋게 떨어지는 폭포가 시원함을 더해 줍니다.